

# 유역물관리촉 출범...죽산·승촌보 철거할까

### 4대강 지역별 맞춤형 물관리 위촉 86명 등 위원 148명 구성 보 처리방안 등 결론낼 듯

죽산보와 승촌보 등 4대강 보(狀)의 운명을 결정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원회 신하 영산강·섬진강, 한강, 낙동강, 금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 출범식을 열어 위촉직 위원 8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4명을 포함한 위촉위원 86명과 당연직 62명 등 총 148명으로 구성됐다.

유역별로는 영산·섬진강 유역위는 정재

성(순천대 교수) 위원장 등 전남대·순천대 교수, 변호사, 환경단체 등 19명으로, 한강 유역위는 김형수(인하대 교수) 위원장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낙동강 유역위는 이진애(인제대 명예특임교수) 위원장을 포함해 23명, 금강 유역위는 이상진(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위원장 등 22명으로 각각 꾸려졌다.

당연직은 유역별 공동위원장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각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과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 산하 지방청과 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역위는 '물관리기본법'에 제시된 기본 원칙의 하나인 유역 단위 물 관리를 실현하고자 설치됐다.

세부적으로는 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 관리 관련 계획이 해당 유역계획과 부합하는지와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의 개방 여부와 해체 여부에 관한 기초 조사 등을 우선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물관리위원회는 보와 관련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 2월 조사·평가 기획위는 영산강과 금강의 5개 보 가운데 죽산보·세종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전면개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올해 안에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처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기획단 관계자는 "보 처리 관련 절차, 시기 등 언제까지 어떤

방식이나 방향으로 결정할지는 앞으로 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 해체에 대한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서 전담할 지 아니면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올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릴지 등 결정방식은 추후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 공동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유역 중심의 통합 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의 계기가 돼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통합 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위원들이 각자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 발전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태풍 할린 들녘 벼 세우기 17일 광주시 북구 효령동 논에서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과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제13호 태풍 '링링'에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국내외 과학·의학 석학들 광주서 '미래의학' 토론의 장

### 27일 전남대 의과대학서 과학·의학 한림원 심포지엄

의학과 과학 분야 국내 최고의 석학들이 광주에서 한 자리에 모여 미래 의학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연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오는 27일 전남대 의과대학 명학회관에서 제36회 한림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미래의학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의학을 선도할 유망한 기술과 연구성과

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 그리고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의견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포지엄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 부장인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에 의해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스탠포드대학 롱리 리아오 교수·일본 츠크바대학 마사키 이에다 교수·일본 국립암센터 마사키 코마츠 교수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희원인 안영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박상철 교수 등 국내외

석학 8명이 연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미래 의학을 바꿀 인류생활과 이로 인한 안정성과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의약학 기술의 발전 도모는 물론 다가올 미래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대 의과대학에선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희원 4명,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희원 15명 등 총 19명의 한림원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경찰 사회적 약자 보호 총력 19개 과제 발굴...대책 수립 시행

전남지방경찰청이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17일 전남경찰은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해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생활안전·여성청소년·형사 등 14개 부서의 기능을 동원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19개 과제를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대상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남경찰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정비사업과 탄력순찰을 추진한다.

경찰은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역 등에서 시작해 거주지역까지 이어지는 통행로 62곳을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했다. 또한 유동인구와 신고 다발지역, 발생범죄 등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범죄 예방 환경을 구축하고, 순찰을 강화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성안심귀갓길에는 안내판·노면표시·센서 보안등·위치표시 등의 방법 시설물이 설치·강화될 예정이다.

전남지역 지자체들도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기관을 지정비하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7    달뜨기 20:59  
해질 18:36    달뜨기 09:38

#### 청명한 가을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8/28	보성	맑음	15/28
목포	맑음	20/26	순천	맑음	18/30
여수	맑음	20/28	영광	맑음	18/26
나주	맑음	17/28	진도	맑음	18/26
완도	맑음	19/28	전주	맑음	18/28
구례	맑음	16/29	군산	맑음	18/27
강진	맑음	17/28	남원	맑음	15/28
해남	맑음	16/27	흑산도	맑음	19/22
장성	맑음	16/27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안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부안바다	북~북동	1.5~3.0	북~북동	1.5~4.0
남해안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안바다(동)	북~북동	1.5~2.5	북~북동	1.5~2.5
남해안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5~2.5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매우 높음

자외선

중음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36	04:26
	21:53	16:49
여수	간조	만조
	04:54	11:15
	17:08	23:21

◇주간 날씨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	☀	☁	☁	☁	☀	☀
15/27	16/26	16/25	16/25	16/25	16/25	15/25

##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완전히 합법화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2건)과 대통령령안(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종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2017년 12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초·중·고교 수업 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 전남 유일 시각장애 특수학교 은광학교 신입생 모집

전남에서 유일하게 시각장애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암군 삼호읍 은광학교가 2020학년도 신입생·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의료재활 전공과 10명이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은광학교 학생들에게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기숙사 등 생활시설 무료, 각종 대외 장학금 지급, 통학버스 운행 및 통학생 교통비 지원, 저시력 보조기기·확대 독서기·점자정보단말기 등 무상 대여, 대학 진학대상자 특별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자는 국가인정 안마사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알선 등 특전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은광학교 교무실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시민이 함께하는 **군산** 자립도시

# 군산시간여행축제

## 10.4(금)~10.6(일)

### 구시청광장 등 시간여행마을 일원